

민사소송법

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,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자이다.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. (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 (총 50점)

- 1) 1심 소송계속 중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. 그 이후 甲이 매매대금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? (15점)
- 2)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. 이후 甲이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? (15점)
- 3) 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자 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. 항소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인 丁이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원고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? (20점)

제 2 문.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. 乙은 자녀 丙과 丁을 상속인으로 두었다. (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 (총 30점)

- 1) 丙만이 1심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, 1심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타당한가? (10점)
- 2) 1심 법원이 乙 사망 이후 丙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丁이 위 소송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(10점)
- 3) 만약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, 1심 법원이 乙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서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면 그 판결이 丙과 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? (10점)

제 3 문. 甲은 중화인민공화국(이하 ‘중국’)의 국적자로서 중국 법인인 A 항공사의 승무원인데, 베이징(北京)을 출발한 A 항공사 소유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근무하고 있었다. 위 항공기가 대한민국 김해공항(부산 소재)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부근의 산에 부딪혀 추락하면서 甲을 비롯한 승무원 및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는데, 탑승객의 60%가 한국인이었다. 사망한 甲의 부모인 乙과 丙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, 乙이 현재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. 乙과 丙은 A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한 甲의 사망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(이하 ‘이 사건 소’)를 제기하였다. (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 (총 20점)

- 1) A 항공사는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? (15점)
- 2) 만일 乙과 丙이 이 사건 소보다 먼저 A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,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? (5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